

옛이야기

정신없는 도깨비

나이
- 유아(3~5세)

주제
- 목표: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지혜를 배운다.
- 주제: 재치

핵심어
- 재치, 도깨비, 농사꾼, 돈, 약속, 거짓말, 말피

한국 문화
- 목표: 옛이야기에 등장하는 도깨비의 모습을 통해 옛날 사람들이 도깨비를 어떻게 상상했는지 살펴본다.
- 요소: 도깨비

한국어
- 목표: 동사 '꾸다'와 '갚다'의 의미를 배운다.
- 단어: 꾸다(빌리다), 갚다(돌려주다)
- 표현: 돈을 꾸다/빌리다, 돈을 갚다/돌려주다, 책을 빌리다/돌려주다.

✿ 구연활동내용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뚝딱! '정신없는 도깨비'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 친구 있나요? 할머니도 아주 바쁘거나 정신이 없을 때는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 도깨비도 무척 정신이 없는가 봐요. 이 도깨비가 어느 날 가난한 농사꾼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 후, 정신없는 도깨비는 농사꾼에게 돈을 돌려줬을까요, 아니면 깜빡 잊어버렸을까요? 함께 이야기 들어 볼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정신없는 도깨비'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돈 없고 땅 없이 가난하게 사는 농사꾼이 있었어요. 돈이 없으니 땅을 살 수 없고 땅이 없으니 자기 농사도 못 짓고 살았지요. 이 집 저 집 힘든 일을 거들며 하루에 한두 푼이나 겨우 벌까 말까 했어요.

하루는 농사꾼이 이웃 마을에서 온종일 일하고 돈 서 푼을 받아 집에 가고 있었어요. 길모퉁이를 도는데 갑자기 신기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긴 도깨비가 나타나 농사꾼 앞을 딱 가로막지 뭐예요.

"이보시오, 나 돈 서 푼만 꿔 주오."

"아니, 나 같은 가난뱅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시오?"

농사꾼은 도깨비가 무서웠지만, 돈을 빼앗길까 봐 거짓말을 했어요.

"에이, 주머니 속에 돈 있는 거 다 아는데. 내일 저녁에 갚을 테니까, 돈 서 푼만 꿔 주오."

도깨비 말에 농사꾼은 할 수 없이 돈을 꿔 줬어요.

"정말 내일 꼭 갚을 거요?"

"그럼, 내일 꼭 갚을 테니 염려 마쇼."

도깨비는 농사꾼의 돈 서 푼을 받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지요.



이야기 들려주기

다음 날 농사꾼이 밭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어제 꾼 돈 갚으러 왔소."

갑자기 나타난 도깨비가 돈 서 푼을 마당에 휙 던지고는 금세 사라졌어요.

'허허, 도깨비가 약속 하나는 잘 지키네그려.'

돈을 돌려받은 농사꾼은 기분이 좋았어요.

그다음 날, 농사꾼이 일을 마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도깨비가 또 나타났어요.

"아니, 웬일이시오?"

농사꾼은 도깨비가 또 돈을 꿔 달라고 할까 봐 걱정되었어요.

"꾼 돈 갚으러 왔지."

"꾼 돈은 어제 갚았잖소?"

"어라, 내가 돈을 갚았다고? 언제?"

도깨비는 농사꾼이 안 받는다고 해도 억지로 억지로 돈 서 푼을 내놓고 가 버렸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아하, 도깨비란 놈이 뭐든지 깜박깜박 잘 잊는다고 했지? 그런데 자기가 꿔 간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갚은 것만 잊어버리네, 허허.'

농사꾼은 공짜로 돈이 생기자, 기분이 좋았어요.

그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도깨비가 농사꾼 집 앞에 또 나타났지요.

"오늘은 또 왜 왔소?"

"왜 오기는, 꾼 돈 갚으러 왔지."

도깨비는 이번에도 돈 서 푼을 마당에 던지고 사라졌어요. 그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또 그다음 날도 도깨비는 매일 나타나 돈 서 푼을 주고 갔어요.

"허허, 도깨비한테 돈 서 푼 꿔 줬더니 돈이 저절로 생기네."

신이 난 농사꾼은 도깨비가 준 돈으로 집도 새로 짓고 땅도 샀어요. 이제는 남의 밭에서 일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고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몇 달이 지나도 도깨비가 매일 찾아온다는 거였어요.

"이보시오, 꾼 돈 갚으러 왔소."

"아이고, 오늘 또 왔네그려."

"돈 갚으러 왔는데 좋지도 않나?"



이야기 들려주기

도깨비는 자기를 반기지 않는 농사꾼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돈 서 푼을 마당에 던지고 사라졌지요.

'아, 매일 도깨비에게 돈 받는 것도 이제 싫다. 도깨비를 그만 오게 할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농사꾼은 그날 밤 도깨비가 오자, 이렇게 물었어요.

"도깨비님, 제발 돈은 그만 주오. 나는 세상에서 돈이 제일 무섭소."

"이상하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지 않나?"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소. 그러는 도깨비님은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섭소?"

농사꾼이 도깨비에게 슬쩍 물었어요.

"나야 말 피가 제일 무섭지. 윽, 말만 해도 무서운 말 피!"

다음 날 저녁이 되자, 농사꾼은 마당에 말 피를 뿌렸어요.

'말 피가 무서워서 이젠 못 오겠지?'

그날 이후 정말로 도깨비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이 나쁜 인간아! 내가 무서워하는 말 피를 뿌리다니! 받아라, 네가 가장 무섭다는 돈이다!"

도깨비의 고함 소리에 깜짝 놀란 농사꾼이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랬더니 도깨비가 글쎄 돈 한 자루를 마당에 와르르 쏟아 내지 뭐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돈이다, 돈!"

농사꾼은 돈이 무서운 척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도깨비는 좋다고 깔깔 웃으며 사라졌어요.

그 후 도깨비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대요. 물론 농사꾼은 더 큰 부자가 되었고요.



✿ 구연활동내용



한국 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가난한 농사꾼이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깨비가 나타나 무엇을 꿔 달라고 했지요. 무엇이었나요?

네, 돈이었지요. 도깨비가 돈을 꿔 달라고 했어요. '꾸다'는 남의 물건이나 돈 따위를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고 얼마 동안 빌리는 것을 말해요. 돈을 빌렸으면 돌려주어야겠죠? 그럴 때 '돈을 갚다'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한국 옛날이야기 속에는 도깨비가 많이 나오지요? 무서운 도깨비도 있지만, 장난스러운 도깨비도 많답니다. 이 이야기 속의 도깨비는 어떤 도깨비인가요?

그래요. 깜박깜박 잘 잊어버리는 도깨비였죠. 옛날 사람들은 무언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이건 도깨비장난이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도깨비는 비상한 힘과 재주로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복을 주기도 한답니다. 신비한 도깨비 이야기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 구연활동내용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정신없는 도깨비' 이야기를 정리해 보아요.

가난한 농사꾼이 우연히 도깨비에게 돈을 꿔 주었어요. 그런데 도깨비는 약속대로 돈을 갚고도, 그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일 돈을 갚으러 왔지요. 덕분에 농사꾼은 점점 부자가 되었지만, 도깨비가 계속 나타나니 농사꾼은 꾀를 냈어요. 바로 도깨비가 무서워하는 말 피를 마당에 뿌려 쫓아낸 거예요. 그러자 도깨비는 농사꾼이 무서워하는 돈을 한 자루 안겨 주고 사라졌지요. 그래서 농사꾼은 큰 부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농사꾼은 결국 재치 있게 도깨비를 돌려보냈지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농사꾼처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빵빵!**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